



# 정교회주보

제2474호

2024.05.2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20> 아토스 성산 20개 수도원 중 마지막으로 탐방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원(사진)은 바닷가가 아닌 성산 숲속에 위치한 몇 안 되는 수도원 중 하나이다. 11세기부터 존재했으며 1818년에 재건축되었다. 수많은 성물과 100권 이상의 사본, 14권의 양피지와 1,000여 권의 고대 서적이 보전되어 있다. 수도원 내부에 4개, 외부에 5개의 성당이 있다.

## 부활 후 제4주일 (중풍 병자 주일)

성 카르포 사도와 알패오 사도  
(제3조 • 조과 복음 5)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9,32~42 ..... 253
- 복음경 : 요한 5,1~15 ..... 99
- 성모송 .....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나 복락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참된 행복'(마태오 5,3~12)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말에서나 그리스말에서나 이 단어는 하느님의 강복, 초월적인 기쁨이라는 관념을 함축합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기쁨은 가난한 이들, 온유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기쁨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쁨과는 정반대의 기쁨,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가치의 전복 위에 세워지는 기쁨입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을 초월하는 차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으로서 추구되고 탐색되어야 합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 충만한 기쁨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부**활절 이후의 기간, 즉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오순절 기간은 무엇보다 기쁨의 기간입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복음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기쁨’의 의미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계속 하나로 연합되어 지내거나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될 때 느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우리의 ‘마음’, 즉 우리 존재의 중심을 참된 기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 채울 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기쁨의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이, 노래, 자연의 아름다움, 사랑의 황홀경, 지식, 창조 활동, 예술, 학문, 교제, 우정, 축복된 결혼, 자녀 출산 등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기쁨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배제되거나 금지되거나 경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고린토 전 3,22)라고 바울로 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느님의 현존이 선사하는 내적 충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신자들 내면 안에 자라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충만함과 기쁨은 삶의 가장 내적인 목표이자, 하느님께서 하신 ‘창조’와 ‘구원 사역’이 갖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요한 17,13 참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갈망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절망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런 이들을 진정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이 이런 이들을 진정 도울 수 있고, 우울증과 절망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 성인들의 기쁨 1

니코폴리스와 프레베자의 멜레티오스 대주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얻으려고 분투합니다. 슬픔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기쁨’이라는 말 뒤에는 ‘기쁨’을 단지 흉내만 내어 모방한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테면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다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남을 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느끼며, 남을 욕보이거나 창피를 주었을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화를 낼 때도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족시켰을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이 과연 건강한 것일 수 있을까?’ 그때 대답은 ‘물론 아니다!’입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으며, 도리어 병든 상태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기쁨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하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분은 우리가 언제나 (병든 상태가 아닌) 참된(건강한)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거룩한 의인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의 마음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요한 19,38 아래 참조)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도 안 지내고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로 가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만약 붙잡힌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대단한 각오와 신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을 내려 무덤 속에 안치하였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주님이신 분의 몸을 합당한 방법으로 장례 지내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성스럽고 평화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5월 29일(수)  
오순절 중앙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대교구 주일학교 온라인 모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학교 모임이 줌(zoo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줌 링크 주소는 각 성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알림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늘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 춘천 성당 가족 수련회

지난 토요일-주일(18-19일) 이틀 동안 가족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을 주제로 정교인의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첫째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참례하지 못했던 토요일 대만과, 주일 조과, 성찬예배를 함께 하였고, 주제와 관련한 토론과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주제로 계속 가족 수련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전주 성당 봄 야유회

지난 19일(주일) 오후에 부안 변산반도의 내소사로 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나를 만나는 형제를 위해서

영성의 샘터

사부 중의 한 명이 이렇게 조언했다.

“방문객들이 그대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오.

‘주여, 우리 모두를 비난과 혐담에서 보호하소서.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형제들이 이곳에서 평화와 유익을 얻고 떠나게 하소서.’“

